

일제강점기 구마모토(熊本)농장 화호지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waho farm of Kumamot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김 동 열*
Kim, Dong-Yeol

이 경 훈**
Lee, Kyoung-Hoon

신 기 라***
Shin, Ki-Ra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Hwaho farm among Japanese farms that were at the center of rural exploi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ontents of the study examined who Kumamoto, the owner of the farm, was, how he entered Chosun and Hwaho-ri, and how much land he owned. And what kind of buildings were in the Hwaho far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w they were arranged, and how the space was organized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Hwaho farm,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he farm that managed the most land among Kumamoto's farms. Currently, farmer's housing, Japanese employee housing, warehouses, and medical examination centers remain. In addition to Kumamoto, other Japanese and related buildings remain throughout the town. However, in recent years, a number of houses of enemy property such as Daue House, Sowha Ryokan, and shops are being destroyed without any records or investigations, so this study aims to record academic records of houses of enemy property remaining in Hwaho-ri Village.

주요어 : 일제강점기, 화호리마을, 구마모토 리헤이, 화호지장

Key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Hwaho-ri Village, Kumamoto Rihei, Hwaho far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식민지 조선은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이하 웅본이평)와 같은 농장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당시 조선의 토지는 가격 대비 생산성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조선총독부 및 지방관청의 보호 아래 불합리한 토지 매입과 소작이 가능하였다.

일제강점기 전복에 설립된 일인(日人) 농장은 동진강과 만경강을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농장이 늘어날수록 토지를 빼앗긴 조선인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진강과 김제평야에 면해있는 신태인읍 화호리에는 약 1,600정보(町步)¹⁾에 달하는 토지를 운영한 전라북도 3대 농장주인 웅본이평의 화호지장²⁾이 있었다.

화호지장은 웅본이평의 농장 중 가장 많은 토지를 관리하였던 농장으로 현재 장장(場長)주택, 일본인 직원주택, 창고, 진찰

소 등이 남아있다. 그리고 웅본이평 이외에 다른 일본인과 관련된 건축물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다우에 주택, 소화여관, 상점 등 다수의 적산주택들이 기록이나 조사 없이 멸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중심에 있던 일인 농장 중 화호지장의 소유주와 농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유주에 관한 사항은 농장 소유주인 웅본이평은 누구인지? 어떻게 조선과 화호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가 소유한 토지는 어느 정도인지? 이고, 농장에 관한 사항은 일제강점기 화호지장에 건축된 건축물 무엇이 있으며, 공간은 어떻게 배치에 되어있는 지이다. 다만 본 논문에 기재되지 않은 농장의 개별건물에 대한 평면, 입면,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장조사와 유사 농장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므로 추후 논문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범위는 전복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와 그곳에 설립된 웅본이평 농장 중 하나인 화호지장이다.

화호지장은 웅본이평의 5개의 농장 중 중 가장 넓은 토지를 운영하였던 곳으로 당시 건립된 가옥, 창고, 진료소 등 건축물이 현재까지도 일부 잔존해 있다.

연구방법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문헌자료와 마을주민 인터뷰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을 분석하였다.

토지는 1915년 조선총독부 기록물 중 정읍군 용북면 화호리 토지 지적도와 정읍시청에 소장된 토지대장을 기초로 하였으며, 건축물은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소장된 화호지장 건물등기부초본, 이영춘 박사 친족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현장조사 및 마을주민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 국립안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Corresponding author :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uch01@korea.kr)

** 국립안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원

*** 국립안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원

본 논문은 '정읍 화호리마을 건축과 인문환경 연구'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음

1) 1정보는 일제강점기 전 국토의 지도와 지적도 작성시 사용한 토지의 넓이(면적) 단위로 3000평(9,917.4m²)에 해당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2) 화호지장은 웅본이평이 운영한 농장 중 하나로 전라북도에 개정분장, 지경지장, 대야지장, 화호지장, 전주분장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이외에 구마모토 리헤이에 대한 인물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논문 및 도서를 참조하였다.

1.3 선행연구

옹본이평 농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함한희와 소순열이 있다. 함한희³⁾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을 겪은 화호리와 관련해 인류학적 관점에서 일본인 거류민촌이 형성되는 과정, 마을에 형성된 식민지 경관의 특징, 거류민촌의 다양한 사람들, 식민지 근대성을 통해 화호리마을에 식민지 경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해서 그 경관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순열⁴⁾은 옹본이평 농장을 중심으로 경영 사례 비교를 통해 일본인이 어떠한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에 진출하여 토지를 집적하였고, 토지경영으로 축적한 자금을 농외 부문에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식민지 조선에서의 농장경영이 식민지 모국 일본에서의 전체 경영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외에 일제강점기 일인 농장과 관련된 연구는 사학, 문화인류학, 법학적 관점에서 일인지주 및 소작제(정승진, 하지연, 최은진, 이영상⁵⁾), 수리조합(박성섭, 손경희, 도리우미 유타카⁶⁾), 토지조사사업(전영길·이성익, 최원규, 배병일⁷⁾), 농업정책 및 시설(원도연, 홍성찬⁸⁾)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위 선행연구는 일인농장 또는 옹본이평에 관한 인문학 연구로 건축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2. 일제강점기 화호리마을

2.1 해방이전 화호리마을

화호리⁹⁾는 용서(龍瑞), 용교(龍橋), 포룡(抱龍), 정자(亭子) 4

- 3) 함한희 외 3명, 식민지 경관의 형성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전라북도 화호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3, 2010, p.50.
- 4) 소순열,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 및 지주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구 4(1), 2005, pp.107~108.
- 5) 정승진, 영주에서 식민지 대지주로-일본 귀족 호스카와가의 한국에서의 토지 집적, 역사비평 73, 2005 ; 하지연,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관리 조직을 통해 본 식민지 지주제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 28, 2015 ; 최은진,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관례를 통해 본 소작문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017 ; 이영상, 1930년대 일제의 지주소작관계의 법제화 정책, 계명사학 8, 1997
- 6) 박성섭, 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수리조합 정책을 통한 농촌통제 강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2017 ; 손경희, 일제시기 경상북도 영천군의 금호수리조합과 일본인 농업경영, 대구사학 135, 2019 ; 도리우미 유타카, 일제하 수리조합 사업과 일본인 토목청부업자, 한국문화 68, 2014
- 7) 전영길·이성익,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 사례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 2017 ; 최원규, 일제초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통계와 사례분석, 한국민족문화 65, 2017 ;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결수연명부, 한양법학 26, 2015
- 8) 원도연, 일제강점기 익산의 근대농업과 이리농림학교의 사회사, 열린정신인문학연구 20, 2019 ; 최재성, 이여성의 1930년대 초 농업 문제 인식:일제 농업정책 인식과 토지분배상황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2017 ; 홍성찬, 일제하 전북지역 일본인 농장의 농업경영,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해안, 2006
- 9) ‘화호’라는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이서구(李書九, 1745~1825)가 전라도 관찰사(1820~1822)로 재임하면서 화호리를 순시하였을 때 수행원에게 이곳 지명을 묻자 숙구지라고 하였다. 이에 이서구는 숙구지라고 하면 오래지 않아 9명의 도둑놈이 와서 큰 일을 낼 것이니 화호로 고치라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일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옹본이평 농장에서 9만석의 토지를 받아가니 9명의 큰 도둑이 왔다는 것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옛날에는 정자마을을 제외한 지역을 숙구지(宿駒地, 宿狗地)라고 불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본래 태인군 용산면(龍山面)에 속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자리, 신덕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화호리라 칭하고, 정읍군 용북면에 편입되었다.¹⁰⁾

지리적으로 화호리는 동진강과 김제평야에 면해있어 먹을 것이 풍부하였다. 그리고 정읍, 김제, 태인(신태인), 부안, 고부로 가는 교통의 요지로 한때는 면사무소 소재지였으며, 해방 이전까지는 5일장(숙구시장)이 열려 농촌과 도시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Fig. 1. Traffic status of Hwaho-ri Vill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 in 500,000 maps 1920, Sourc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Fig. 2. Statu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Hwaho-ri Vill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 in 50,000 maps 1936, Sourc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있다(신태인읍지 편찬위원회, 신태인 백년사, 2015, p.291). 하지만 현재까지도 화호리 어른신들은 ‘화호’라는 명칭보다 ‘숙구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행사명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10) 신태인읍지 편찬위원회, 신태인 백년사, 2015, p.290.

그러나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교통과 상권이 자연스럽게 신태인읍으로 이동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마을 주변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급속하게 상권이 무너져 지금은 농촌과 도시의 이중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쇠락해 가는 농촌 모습만이 남아있다.

2.2 일인 거류민촌으로 변모한 화호리

김제평야 중심에 위치한 화호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마을 인근까지 동진강을 통해 배가 드나드는 강운(江運)이 발달하였으며¹¹⁾, 주변 김제, 부안, 고부, 정읍, 태인 등 도시의 교차점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화호리는 일본이 농업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적의 이주지로 선정되었으며¹²⁾, 결과적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이주하게 되었다.

화호리에 들어온 일본인은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다우에 타로(田植太郎), 오사와 신조(大澤新藏), 니시무라 타모츠(西村保), 니시무라 미츠오(西村三男), 니시무라 도시아키(西村利明), 이케다 히토시(池田等), 후쿠이 마사토시(福井正利), 요시이 오사(吉井靑雄), 미즈다 겐사부로(水田源三郎),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본 고지현(高知縣) 출신 이민 25가구¹³⁾ 등 다수가 있다. 그들은 화호리 토지를 매입하여 농장주가 되거나 상점 등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거류민촌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일제강점기 이곳에 일본인들이 운영한 여관, 잡화점, 대장간, 문방구 등이 있었다는 마을주민 구술¹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인들의 이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915년(大正 4년) 측량된 용북면 화호리 지적도¹⁵⁾와 토지대장¹⁶⁾에 기재된

1915년 전후 토지용도 및 소유자 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 중 대지(垞)는 용서, 용교, 포룡의 중심거리와 정자마을에 집중되어 있고, 마을 주변으로는 논(畓)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¹⁷⁾ 그리고 토지 소유의 경우 일본인들이 용서, 용교, 포룡을 가로지르는 마을 중심 도로를 기준으로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03년 화호리에 들어온 옹본이평은 용서에 넓은 토지를 매입하여 농장을 조성하였고, 마을 중심도로 주변으로 다수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주민 구술에 따르면 당시 화호리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옹본이평 농장 소작인이거나 농장에 식자재와 물건 등을 납품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요컨대 토지 정보와 구술에 근거할 때 화호리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용서, 용교, 포룡을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중심으로 토지를 집적하였고, 집적된 토지에 농장, 상점, 유향 등을 운영하면서 거류민촌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옹본이평은 이곳에서 농장 운영을 넘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여 일본인과 토착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시 건축물들이 근래 대부분 멸실되어 상세한 거류민촌 경관 분석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옹본이평과 화호지장

3.1 옹본이평의 조선 이주와 배경

명치유신 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세력이 극동에 팽창하면서 러일전쟁까지도 불가피하다는 일본 국내여론이 비등할 무렵 게이오대학 이재과에 재학 중이던 옹본이평(당시 23세)은 해외 진출의 청운을 품고 구한말에 시찰차 조선 내한하였다.¹⁸⁾

옹본이평은 각지를 여행하던 중 호남일대 농지개발의 유망성을 간파하고, 1902년 교우인 마스토미야사자에몬(樸富安左衛門)의 농장지배인 자격으로 조선에 진출하였다. 이후 독립하여 1903년 10월에 전라북도 옥구군 박면 내사리 및 태인군 화호리 두 지역에 농장을 개설하였으며, 1932년에는 약 3,500정보를 소유한 일약(一躍)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였다.¹⁹⁾

옹본이평 농장은 5개 군에 걸쳐 1本場 3支場 1分場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개정본장·지경지장·대야지장에서 약 1,300정보, 화호지장에서 약 1,600정보, 전주분장에서 약 90정보를 관리하였다.

11) 1928년 발행된 『全羅北道要覽』의 동진강편을 보면 ‘(원문)東津江…中略… 潮汐の關係は略萬頃江と等しきも流路十一里にして船の航行する区間四五里に過ぎず 船着場の主なるものを扶安郡文浦井邑郡の禾湖里等とす (번역)동진강은…중략… 조수의 간만은 만경강과 비슷한 수준이나 물길이 11리 정도여서 배로 항해할 수 있는 구간은 45리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선착장은 부안군 문포, 정읍군 화호리 등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화호리는 육상교통과 더불어 수상교통도 발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마을주민 구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이곳에 생산된 쌀이 동진강을 통해 지금의 군산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통해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조운(漕運)이 발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12)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농업이민 이주지를 선정할 때 별도의 개간 작업 없이 바로 농업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조선농업이주민 제8회 공고문(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장) 중 다음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원문)割当地は既墾地・移住民割り当て土地はすでに朝鮮人の耕作する既墾地となるべく旱害水害の憂い少なきものなり 北海道の如く未墾地を借りて開墾するにはあらず 手入れさへ良ければ最初より内地の收穫に近き收穫を得べき見込みある土地なり (번역)할당 예정 토지는 기존 경작지 - 이주민에게 할당할 토지는 조선인이 이미 경작 중인 개간된 땅으로 가뭄이나 수해 우려가 매우 적다. 훗카이도처럼 미개간지를 빌려 개간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손질만 하면 초기부터 일본에서 수확하는 양만큼 거두어둘 수 있는 비옥한 토지이다.’

13) 하지연, 식민지 화호리의 일본인 지주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의뢰원고, 2020, p.12 수정 인용

14) 화호리마을 현장조사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정영환 용을 비롯하여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일제강점기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인터뷰 하였다.

15) 「용북면 화호리 지적도」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16) 정읍시청 소장 자료

17) 토지분석은 마을주민이 밀집해 살고 있는 중심지역에 한정하였으며, 분석 면적은 지적도 상 517필지이다. 다만, 실제 분석된 필지는 226필지이며, 나머지 필지는 토지대장이 없어 현재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8) 이영춘, 나의 교우록, 쌍천 이영춘 박사 기념사업회, 2004, pp.25-26.

19) 소순열,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및가지 지주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구 4(1), 2005, p.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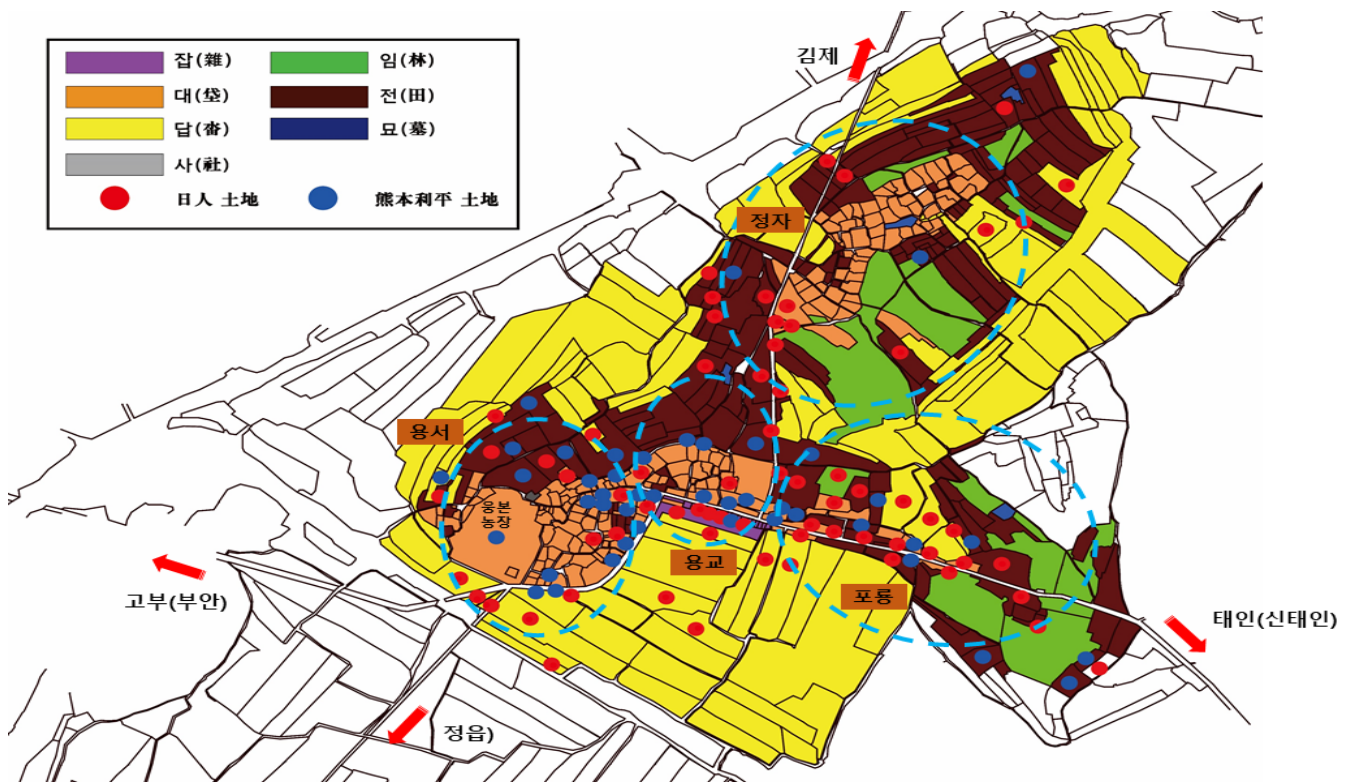


Fig. 3. Hwaho-ri Village Japanese Land Status Map (As of 1915)

Table 1. Land size by farm owned by Kumamoto (As of 1945)

농장	소재지	토지규모(町)	비율(%)
개정분장	옥구군	451.3	15.4
지경지장		580.0	19.8
대야지장	김제군	240.9	8.2
화호지장	부안군 정읍군	1,575.9	53.7
전주분장	완주군	85.6	2.9
총계		2,933.7	100

*출처: 하지연, 식민지 화호리의 일본인 지주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의뢰원고, 2020, p.15. <표6. 1945년 3월말 현재 구마모토 농장의 농장별 토지규모> 수정 인용

여기서 웅본이평이 이주한 1902년은 조선이 일제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기업인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조선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넉넉한 자본도 없이 자국을 떠나 조선으로 온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소순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토지 투자의 유리성이다. 당시 조선의 토지가격은 일본의 1/10-1/30 정도로 낮고, 토지 수익률은 2-3배 높았다. 둘째는 일본인 자산가의 지원이다. 웅본이평은 조선의 토지가 저렴하다는 사실을 마츠나가야사에몬(松永安左衛門)에게 보고했고 그를 통해 일본 자산가들과 인연을 맺어 자산을 출자 받았다. 셋째는 군산농사조합의 참여와 활동이다. 조합은 당시 불안정한 일본인 토지매수에 대한 공익적 보증을 위해 1904년 5월에 설립된 토지취득단체로 군산이사청(群山理事廳)의 보호를

받았으며, 웅본이평은 직접 조합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평의원 자격으로 적극적인 토지매수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웅본이평의 결혼문제이다. 웅본이평은 송영안좌위의 누이동생 쿠니코(國子)와 결혼하려 했지만, 양가 반대에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웅본이평은 졸업직전 국자와 이끼(壹岐)를 탈출해 교우인 마스토미야사에몬(槩富安左衛門)의 집에 몸을 의탁하였다. 마스토미야사에몬은 그 사정을 듣고 마츠나가야사에몬과 대면하여 두 사람을 후원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성사시켜 목천부의 농장지배인 자격으로 조선에 진출하였다.²⁰⁾

결과적으로 웅본이평이 조선에 이주한 근본적인 배경은 그의 결혼문제이었으며,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선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Fig. 4. Kumamoto in the hometown of Iki Island (source: Lee Ju Min Hospital chief)

20) 소순열,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및가치 지주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구 4(1), 2005, pp.108-109.

3.2 화호지장 건축물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에 있는 화호지장은 웅본이평 농장 중 가장 넓은 토지를 관리하는 농장으로 용서마을 당산나무 주변에 조성되었다.

현재 화호리에는 화호지장과 관련 건축물로 웅본이평 별장으로 사용된 장장(場長)주택²¹⁾, 일본인과 한국인 직원 주택, 진료소, 창고(화호중앙병원) 등이 있다.²²⁾

Table 2. Hwaho farm Building Status (As of 2020)

연번	지번	건축물	유무	건평수
A	766	장장주택	○	57.55
B	766	경리과장주택	△	
C	766	합숙소	○	34.18
D	766	농산과장주택	○	23.97
E	766	창고(화호중앙병원)	○	110
F	766	사무소	×	
G	766	자혜진료소(진찰소)	△	18.63
H	811	한국인 직원주택	△	
I	766	일본인 직원주택	△	21.08
J	798	한국인 직원주택	△	19.44
K	781	일본인 직원주택	△	

- *B주택 : 외부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음
- *E창고 : 창고는 해방 이후 병원으로 개조되었음
- *F사무소 : 현재 멸실되어 있음(위치추정:마을주민 인터뷰)
- *G진료소 : 일부 멸실되어 있음
- *H주택 : 총4동, 내외부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음
- *J주택 : 총3동, 1동 멸실, 1동 멸실중, 1동 리모델링
- *I주택 : 1967년 295번지로 이전됨(위치추정:마을주민 인터뷰)
- *K주택 : 총2동, 1동은 현대식건물로 증축됨
(1동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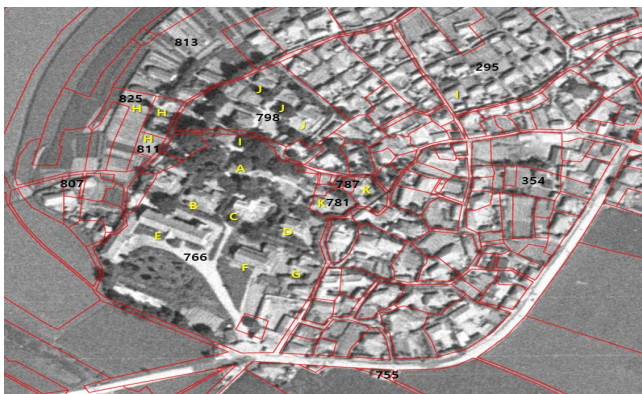


Fig. 5. Hwaho farm Space and Building Location Map
(Background: Aerial photograph of 1966, Sourc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 21) 마을주민 구술에 따르면 웅본이평은 화호지장에 1년에 1~2회 방문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농장 지장장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22) 농장에 남아있는 건축물 중 경리과장주택과 농산과장주택이 명명된 문헌자료는 없다. 다만, 마을주민 구술과 함한희 연구논문에 주택명을 명명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도 인용하고자 한다. 다만, 합숙소의 경우 정영환 옴은 합숙소가 아니라 창고지기가 살았던 주택이라고 구술하여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제강점기 화호지장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94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建物登記簿抄本 禾湖支場分²³⁾』과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해방이전 화호지장에는 김제시 부량면 1동을 제외하고 사무소 1동, 일본식 주택 14동(진찰소 포함), 한국식 주택 11동, 목조창고 5동, 석유창고 1동 등 총 32동이 있었다.

Table 3. Hwaho farm Building Count Table (circa 1943)

종별	동수	건평수
事務所	1	73.21
日本式木造瓦葺平家建住宅	13	375.34
日本式木造垂鉛葺主家建住宅	1	20.83
朝鮮式木造瓦葺平家建住宅	8	142.78
朝鮮式木造葺平家建住宅	3	59.88
木造瓦葺倉庫	4	559.82
木造垂鉛葺倉庫	2	166.33
石油倉庫	1	6.15
計	33	1,404.34

일본식 주택은 대부분 농장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으며 목조가구에 기와지붕으로 건축되었다.²⁴⁾

일본식 주택의 세부 내용을 보면 24번, 25번, 28번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은 20평 내외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25번 주택의 경우 면적이 다른 주택에 비해 현저하게 넓어 높은 직위의 건물로 추정되며, 현재 장장주택과 면적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보아 동일 건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24번과 28번 주택은 장장주택 다음으로 큰 건물로 1966년 항공사진을 참고하였을 때 경리과장 주택과 합숙소로 추정된다.

조선식 주택은 목조가구에 기와 또는 초가지붕으로 건축된 건물로 농장 중심공간에 4동 외곽에 7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은 807번지 1동을 제외하고 일본식 주택과 같이 대부분 20평 내외로 건축되어 있어 당시 농장 직원의 주택 표준면적이 20평 내외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건축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은 H와 J주택뿐으로 나머지 주택은 멸실되어 건물 형태를 알 수 없다.

H와 J 조선식 주택은 ‘一’자형(H), ‘ㄱ’자형(J) 평면으로 일반적인 한국전통민가 평면을 따르고 있지만, J주택은 창호 등의 디자인이 일본식으로 건축되었다.

창고는 목조가구에 기와 또는 함석지붕으로 건축되었으나 석유창고의 경우 외벽이 다른 창고와 달리 콘크리트로 건축되어 차이를 보인다. 마을주민 구술에 따르면 경리과장 주택 남쪽으로 대형 창고가 5동이 있었다고 한다.

창고는 농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로 100평 이상이며, 1966년 항공사진과 당시 기록사진 그리고 마을주민 구술을 중

- 23) 『建物登記簿抄本 禾湖支場分』, 연도미상,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 건축물 등기부초본 제작연대는 소유주가 ‘주식회사웅본농장’으로 되어있고, 등기일이 1943년으로 된 점으로 추정컨대 1943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 24) 예외적으로 12번 주택은 농장 외곽 354번지에 있으며, 목조가구에 함석(아연)지붕으로 건축되었다.

합하였을 때 현재 창고 ‘E’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일렬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석유창고는 관련 기록이 없어 당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대형 창고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사무소²⁵⁾와 진찰소는 1966년 항공사진 상 창고를 기준으로 각각 동쪽 F와 G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사무소(F)와 진찰소(G)는 목조가구와 기와지붕으로 건축되었으며 주변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Hwaho farm Building Details (circa 1943)

연번	소재지	지번	구조	건평수
1	井邑郡 新泰仁邑 禾湖里	金堤郡 扶梁面 312-2	木造垂鉛葺平家建倉庫	66.00
2		807	木造草葺平家朝鮮建住宅	17.01
3		807	木造草葺平家朝鮮建住宅	28.80
4		813-1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7.37
5		813-1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7.37
6		825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7.37
7		825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7.37
8		781	木造瓦葺平家建住宅	19.94
9		787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3.73
10		775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2.42
11		775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4.06
12		354	木造垂鉛葺平家建住宅	20.83
13		798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6.29
14		798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9.82
15		798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9.82
16		811	木造瓦葺平家朝鮮建住宅	17.37
17		766	木造瓦葺平家建事務所	73.21
18		766	木造瓦葺平家建倉庫	216.04
19		766	木造瓦葺平家建倉庫	133.25
20		766	木造瓦葺平家建倉庫	106.28
21		766	木造瓦葺平家建倉庫	104.25
22		766	木造垂鉛葺平家建倉庫	100.33
23		766	木造瓦葺コン크리트建倉庫	6.15
24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39.07
25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56.72
26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4.64
27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5.10
28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36.37
29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0.65
30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2.44
31		766	木造瓦葺平家建住宅	22.44
32		766	木造瓦葺平家建診察所	37.76
33		766	木造草葺平家朝鮮建住宅	13.98



Fig. 6. View of Hwaho farm warehouse after liberation (source: Lee Ju Min Hospital chief)

3.3 화호지장 공간과 배치

화호지장은 용서마을 구릉지를 절토한 후 축대를 쌓아 계단식으로 평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간은 평야, 도로, 주 출입구 등에 인접한 남쪽에 쌀을 보관하는 창고, 사무소 등이 배치된 관리공간을 두었으며 주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릉지 정상부 주변으로는 장장주택과 직원주택들이 배치된 주거공간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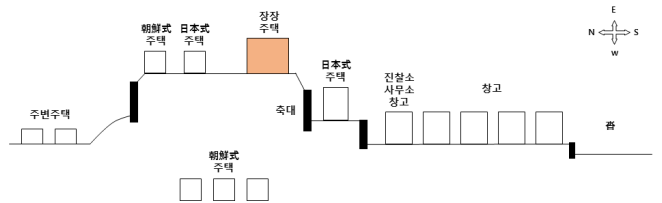


Fig. 7. Hwaho farm Space Schematization



Fig. 8. Hwaho farm Space Composition

관리공간에는 대형창고 5동, 석유창고 1동, 직원 사무소 1동, 진찰소 1동 등이 있다. 위 건물들은 약 1,600정보 토지에서 생산된 미곡을 저장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치거나 아픈 소작

25) 현재 사무소 위치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마을주민 구술에 따르면 해방 이후 양재(洋裁)학원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인 치료를 위한 기능을 갖춘 건물들로 배치되어 있다.²⁶⁾

주거공간은 농장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되며, 두 지역 모두 일본식 주택과 조선식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²⁷⁾ 중심지역에는 일본식 주택 10동과 조선식 주택 4동이 있으며, 특이점은 장장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마치 장장주택을 보호하듯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점이다. 그리고 외곽지역에는 일본식 주택 3동과 조선식 주택 7동이 있으며, 특이점은 일본식 주택은 농장 동쪽에 배치되어 있고, 조선식 주택은 서쪽에 배치된 점이다.



Fig. 9. Gaejeo Farm Space Composition

이러한 공간배치는 웅본이평의 농장 중 개정본장에서도 볼 수 있다. 개정본장은 웅본농장 중 가장 먼저 설립된 곳으로 화호지장과 같이 구릉지를 절토하여 축대를 쌓아 조성하였다. 그리고 농장은 남쪽에 창고, 사무소, 진찰소가 있는 관리공간과 북쪽에 장장주택과 더불어 직원 주택이 있는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었다.

4. 결론

화호리는 김제평야와 동진강이 접한 곳에 있어 먹을 것이 풍부하였고, 수상과 육상교통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환경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을 식량 및 원료공급과 과잉인구를 배출할 목적으로 실시된 농업이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적의 이주지가 되었다.

당시 화호리에 이주한 이주민들은 마을 중심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여관, 잡화점, 대장간, 문방구, 농장 등을 운영하며 거류민촌을 형성하였다. 특히 이주민 중 웅본이평은 화호리에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였으며, 중심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였다.

웅본이평이 조선 및 화호리에 이주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그의 결혼문제였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선택하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여 조선에서 성공한 농장주가 되었다.

웅본이평은 전라북도에 5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 화호지장이었다. 화호지장에는 1943년 기준으로 32동의 건물이 있었으며, 그 중 화호리에는 주택, 창고 등 31동의 건물이 있었다.

농장 공간은 건물의 기능과 배치에 따라 관리공간과 주거공간으로 구분된다.

먼저 관리공간에는 대형창고 5동, 석유창고 1동, 직원 사무소 1동, 진찰소 1동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창고 1동과 진찰소 1동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주거공간에는 일본식 주택과 조선식 주택이 농장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되어 배치되어 있다. 지역별 특이점을 보면, 중심지역은 장장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장장주택을 보호하듯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어 마치 일본 무로마치 시대 다이묘들이 완만한 구릉지에 축조한 성(城)이 연상된다. 반면에 외곽지역은 일본식 주택은 농장 동쪽에 배치되어 있고, 조선식 주택은 서쪽에 배치되어 있어 국적(國籍)에 따라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建物登記簿抄本 禾湖支場分』을 보면 장장주택과 몇몇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 면적이 20평 내외로 건축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정하건대 당시 농장 직원주택의 표준면적은 20평 내외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농업이민정책에 의해 다수의 일본인이 이주하여 일인(日人)거류민촌이 형성된 화호리마을, 그리고 농촌수탈의 중심에 있던 일인 농장 중 화호지장과 농장주 웅본이평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화호지장에 있었던 개별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등에 관한 연구와 동시대 전라북도에 설립된 일인(日人) 농장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농촌수탈을 어떻게 자행하였는지에 대해 건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도리우미 유타카, 일제하 수리조합사업과 일본인 토목청부업자, 한국문화, 68, 2014.
2. 박성섭, 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수리조합 정책을 통한 농촌통제 강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2017.
3.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결수연명부, 한양법학, 26, 2015.
4. 소순열,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몇가지 지주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구, 4(1), 2005.
5. 손경희, 일제시기 경상북도 영천군의 금호수리조합과 일본인 농업경영, 대구사학, 135, 2019.
6. 신태인읍지 편찬위원회, 신태인 백년사, 2015.
7. 원도연, 일제강점기 익산의 근대농업과 이리농림학교의 사회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 2019.
8. 이영상, 1930년대 일제의 지주소작관계의 법제화 정책, 계명사학, 8, 1997.

26) 웅본이평이 농장에 의료시설을 두어 소작인을 치료한 이유는 조선인에 대한 애민에 입각한 행위가 아닌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27) 웅본이평 농장의 일본식주택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일본인 거주로 연결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개정본장 직원이었던 이영춘 박사의 경우 일본식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9. 이영춘, 나의 교우록, 쌍천 이영춘 박사 기념사업회, 2004.
10. 전영길, 이성익,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 사례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 2017.
11. 정승진, 영주에서 식민지 대지주로-일본 귀족 호소카와가의 한국에서의 토지직접, 역사비평, 73, 2005.
12. 최원규, 일제초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통계와 사례분석, 한국민족문화, 65, 2017.
13. 최은진,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본 소작문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017.
14. 최재성, 이여성의 1930년대 초 농업 문제 인식: 일제 농업정책 인식과 토지분배상황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2017.
15. 하지연,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관리 조직을 통해 본 식민지 지주제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 28, 2015.
16. 하지연, 식민지 화호리의 일본인 지주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의뢰원고, 2020.
17. 함한희 외 3명, 식민지 경관의 형성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전라북도 화호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3, 2010.
18. 홍성찬, 일제하 전북지역 일본인 농장의 농업경영,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2006.
19. 建物登記簿抄本 禾湖支場分,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 五萬分一圖, 金堤, 국토지리정보원.
21. 五十萬分一圖, 全羅北道, 국토지리정보원.
22. 朝鮮地圖,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23. 全羅北道要覽,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24.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25. 정읍시청, <http://www.jeongeup.go.kr>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접 수 일 자 : 2020. 10.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0. 11. 11

게 재 확 정 일 자 : 2020. 11. 21